

LOCAL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나주, 에너지산업 특화 강소특구 2단계 ‘착착’

함평, 산불 피해목재 재활용
농가에 톱밥 116t 무상 지원

함평군이 산불 피해지역에서 벌채된 나무를 재활용한 톱밥을 축산농가에 무상 공급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서 벌채된 나무를 활용해 생산한 톱밥 116t을 최근 지역 한우 농가 180가구에 무상 지원했다.

톱밥은 2024년 하반기에 벌채된 38ha 규모의 산불 피해목을 가공해 제작한 것으로, 함평군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통해 축산농가에 배부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지역에 서수집한 산림부산물들을 활용해 펠릿 100t을 공급한 바 있다.

군은 산불 피해목 무상 벌채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육 환경 개선은 물론, 예산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함께 기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지역에 산수유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어 산림을 회복하는 한편, 관광사업 자원화에도 힘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상의 군수는 “산림부산물과 재단 피해목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며 “나무심기 확대와 함께 산불 피해목 톱밥 공급 등 입업지원 활용을 통한 다각적인 농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고흥, 가족시장 방역조치 강화

수익사 상시 배치·소독 등 대응

고흥군은 가족시장 재개장 이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며 안전한 시장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1일 가족시장을 재개장한 이후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방역 기준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강화된 주요 방역 조치로는 출입기록부·차량 소독기록 철저 관리, 시장 진입 전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이상축 출입 금지, 가족 운송 차량 내·외부 2회 소독 의무화(직원 차량 포함), 폐장 후 시장 전 구역 청소·세척·소독 실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장 입구에는 수의사를 상시 배치해 가족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를 설치해 전염병의 시장 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 육성 등 2030년까지 200억 투입
기업 성장 초점...윤병태 시장 “자생형 산업 생태계 조성”

나주시가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기업 유치, 연구·기술개발 단지 조성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2단계에 들어갔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강소특구 육성사업 종합 평가에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해온 1단계 사업 성과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강소특구 2단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2단계 사업 확정에 따라 시는 강소특구 특화 분야인 친환경 고효율 태양광 발전·연계 안정화, 차세대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 육성에 나선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지역에 위치한 기술 핵심기관을 거점 삼아 인근 지역을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R&D) 배후 공간으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기술 핵심 기관, 나주 혁신산단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구개발 배후 공간으로 육성해왔다.

지난 4년간 1단계 사업을 통해 기업이 전 143건, 연구소와 기업 24개 설립, 창업 69건, 신규 일자리 471개 창출 등의 실적

을 달성했다. 여기에 한국전력 보유 기술에 기반한 태양광, 신재생 O&M(운영·유지보수), 에너지저장 수요 기업 맞춤형 기술이전이 활발해지면서 3560억원 규모 누적 매출을 달성하는 등 전국 14개 강소특구 중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단계 사업은 보다 실질적인 기술 실증과 기업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시는 지역산업 연계 및 한전 2050R&D 마스터플랜, 탄소중립 기술 전략을 토대로 친환경 고효율 태양광 기술 발전 및 연계 안정화, 차세대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에너지 전환 시대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 실증 구축 체계 마련과 에너지특화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의 연계 R&D,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쓴다.

윤병태 시장은 “강소특구 2단계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 공급기관 중심의 전 단계 사업에서 더 나아가 전국 강소특구 간 협력과 지역 에너지산업 기반으로 자생형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100세 시대 구강건강 함께 챙겨요” 장성군은 최근 장성 가족행복센터에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 교육기관 관계자, 지역민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강건강 매니저 위촉, 건치주민 인증서 수여, 구강건강 ‘퍼포먼스’, 구강건강 생활실천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화순 백아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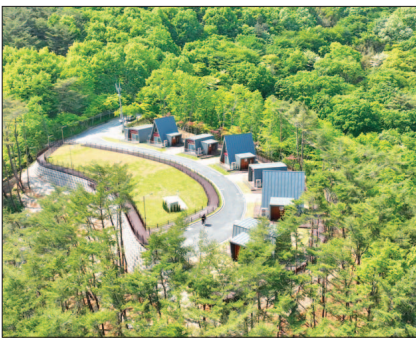
원룸형·다락형 2종류 총 6동

화순군은 백아산자연휴양림 신규 숙박시설 트리하우스를 개장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푸르른 자연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자연 속 트리하우스는 원룸형과 다락형 2종류로 총 6동이 조성됐으며, 2인 기준에 최대 4인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숙소 측면에 독립적으로 마련된 주차시설(1대) 외 객실에는 정수기, TV, 와이파이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트리하우스는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대형 창호를 설치해 푸르른 잔디광장과 탁 트인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또 동마다 마련된 개별 테라스에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해 이용객들이 일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백아산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14동 12실), 숲속수련원(1동 6실) 기존 숙박시설에 이번 트리하우스(6동) 신설로 화순

을 찾는 많은 이들이 휴양림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보강했다.

주변 잔디광장과 정자,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 눈썰매장 등)에 화순 대표 11경 중 하나인 백아산 하늘다리 등 다양한 여가시설과 산행코스가 있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휴양림에서 힐링의 여가를 즐길 수 있다. 트리하우스 예약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예약사이트 ‘숲나들레’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트리하우스 개장을 통해 화순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더 많은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백아산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를 이용하느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목포 대반동 해양친수시설 개방

산책로·친수광장 등 여가공간 제공

목포시는 대반동에 조성된 해양산책로, 친수광장, 낚시터 등 해양친수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반동 해양친수시설은 2019년 목포시가 해양수산부에 ‘대반동 수제선 정비사업’을 건의하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총 72억원 전액 국비를 투입해 조성했다.

시설은 친수광장 1357㎡, 해상산책로 207m, 낚시터 130m와 야간 경관조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 10월 착공해 올해 3월 공사를 완료한 후 목포시에서 준공시설물을 이관받아 공식 개방했다.

목포 대반동 권역은 지난해 연안정

비와 스카이워크 확장에 이어 올해 수제선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며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떠오르는 해양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목포 바다의 대부분은 국가관 리무역항으로 낚시행위가 제한돼 있어 이번 대반동 낚시터 개방은 낚시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반동 해양친수시설 전면 개방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체류형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목포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도시 목포의 매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북피크닉 성료

가족 단위 방문객 2000명 참여

담양문화재단은 최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열린 인문학 작은 축제 ‘메타세쿼이아 나무 밑 북피크닉’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청년, 관광객까지 2000여명이 참여하며 초여름 햇살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과 음악, 인문학을 만끽했다.

아외에 설치된 인문학가옥 도서 1000여

권 규모의 ‘아외도서관’, 북피크닉 바구니와 책차방 프로그램, 전통진 작가의 ‘나를 돌보는 인문학, 메타 인문학’ 강연, 클래식 밴드 ‘열음’의 공연 등은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방문객들은 돗자리, 캠핑의자에 앉아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자연을 보내며 라디오로 낭독되는 북피크닉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일상 속 인문학을 경험했다. 체험·플리마켓 부스에서는 손수건 만들기, 책갈피 제작 등 다양한 인문 활동이 펼쳐졌다.

담양=조성용 기자

www.중앙미용학원.co.kr

취업, 창업, 자격증 합격률 1위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 중앙미용학원

“미용교육의 선두주자!! 52년 전통 명문 뷰티 전문아카데미”

▼ 고3 미용위탁교육 지금 접수중!

3월 ~ 12월 국가자격증 + 취업실전교육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수강료, 재료, 수업) 전액 국비지원

▼ 취업 성공패키지 훈련비·재료100% 무료(1유형 참여자)

·매일 참여 수당 및 취업성공금 수당 지원

·만 18세 이상 실업자 누구나 가능 (단, 위계형선생의 경우 만 15세 이상 가능)

18세이상

실업자·재직자 전과정 전액 국비

- 헤어미용국가자격증
- 피부미용국가자격증
- 네일아트국가자격증
- 메이크업국가자격증
- 이음사국가자격증

- 헤어실전취업 (연구)
- 남성커트 숙성과정
- 피뮈트여성커트취업과정
- 네일아트연구취업과정
- 피부미용연구취업과정

현재접수중

주·야간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미용사

취업·창업실전교육

미용·이음·기능장

피뮈트인테리어성형트트숙성
남성트트숙성교육

인문계 고3예정자 미용100% 지원

훈련비
재료
교육비

디자인·승급·개업·미용실운영 고객실습교육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 중앙미용학원

동구 금남로 232-4 (금남로 2가, 우리은행 옆)

미용·이음기능장 광주, 전남 지정 교육원
피뮈트인테리어 / 한국최초 멤버스쿨

접·수·문·의 062) 225-9888